

교회생활 안에서 교회생활을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삶

(주일 — 오전 2부 집회)

메시지 8

한 새사람을 산출하기 위해
교회 안에서 처신하는 법

성경: 딤후전 3:15, 엡 2:13-16, 3:16-21, 골 3:10-11, 고전 12:12-13

- I.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고 말한다.
- A. 여기서 ‘처신하다’는 말은 행정을 가리킨다. 디모데는 교회들의 관리와 행정에 관련된 문제들을 안배하라는 바울의 위임을 받았다.
 - B.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안배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 C. 여기서 바울은 그 자신이 늦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면 우리는 바울이 사실상 주님께서 늦어지시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음을 깨달을 것이다. 주님께서 돌아오시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곧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 II.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시기를 갈망하는지를 분명히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을 이해해야 한다.
- A. 에베소서 2장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사람이 된 것에 대해 말한다.
 - 1. 새사람은 한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새사람은 단체적인 새사람이다. 따라서 에베소서 2장 15절은 그리스도께서 이 둘(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한다.
 - 2. 그리스도는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없애 버리심으로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모든 규례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 엡 2:15, 골 2:14.
 - a. 규례들은 의례적(儀禮的)인 율법과 그 의식(儀式)들을 가리킨다. 이것들은 생활과 경배의 형식 또한 방식이다.
 - b. 생활과 경배의 이러한 형식이나 방식이 적대감과 분열을 일으킨다. 합당한 교회생활을 실행하려면, 모든 규례를 거절하고 버려야 한다.
 - 3. “또한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 엡 2:16.
 - a. 이 한 몸인 교회(엡 1:23)는 이전 절인 2장 15절에 언급된 한 새사람이다. 바로 이 한 몸 안에서 이 둘, 곧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 b.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은 얼마나 큰 계시인가!
- c.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구원받았다.
- 4.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아담, 곧 옛사람 안에 있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아담에게서 나와 옛 사람을 벗어 버렸고, 새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입었다 — 골 3:9-10, 엡 2:15.
- B.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 골 3:10.
 - 1. 그리스도는 새사람의 조성 성분이기 때문에(골 3:11, 1:27-28), 새사람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이것은 골로새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요점이다.
 - 2.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었고(갈 3:27)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골 1:27), 새사람은 아직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았다.
 - 3. 새사람은 옛 창조물에 속한 우리를 그 구성 요소로 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엡 2:15)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나오는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이 보여 주듯이, 이러한 새로워짐은 주로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일어난다.
 - 4. 새사람은 우리의 영 안에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표현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우리의 생각 안에서 새로워지고 있다 — 골 1:15, 히 1:3상.
 - 5.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 갈수록(빌 3:8, 10) 새사람은 더욱더 새로워질 것이고, 한 새사람의 산출을 위해 주님의 형상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 C. 골로새서 3장 11절은 헬라인과 유대인, 할례자와 무할례자, 야만인, 스구디아인, 노예, 자유인이 모두 십자가 위에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없습니다.(직역하면, 있을 수 없습니다.-역자 주)’라는 표현은 모든 것이 종결되었고, 새사람 안에는 타고난 사람이 없으며, 새사람 안에는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강한 말이다. 우리가 참으로 이 빛을 본다면, 우리의 봉사와 일에 매우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 D.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은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 1. 이것은 골로새서 3장 11절과 일치한다. 우리는 모두 성령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즉 한 새사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다.
 - 2. 십자가에 의해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에 의해, 그리스도는 그분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셨다.
 - 3. 이 새사람, 이 몸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 새사람 안에는 차이점들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계신다. 그리스도는 모든 지체들이시고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신다.
- E. 우리가 위에 언급한 모든 요점에 대해 분명해질 때에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정을 수행하고 봉사하는지(어떻게 처신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III. 우리는 바울의 본을 통해 교회의 행정과 관련된 열 가지 중대한 요점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열 가지 요점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열 가지 요점을 우리의 마음 판에 새기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 비교 고후 3:3.

- A. 첫째로,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분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그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한다. 바울은 지식이나 교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계시해 주신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 비교 행 26:16-19.
- B.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골 3:4).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은 그분께서 몸의 생명, 곧 새사람의 생명이심을 뜻한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말이 강하게 보여 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생명으로 취하고 그분에 의해 살아야 하며, 골로새서에 계시되신 우주적으로 광대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그분의 온 존재와 그분께서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모든 것이 객관적인 것으로 남지 않고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될 것이다.
- C. 셋째로,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바울은 “내가 ... 율법에 대하여 죽었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한 것입니다. ...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라고 말한다 — 갈 2:19-20.
- D. 넷째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가 소유한 것이 십자가에서 종결되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말한다 — 갈 2:20.
- E. 다섯째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나 우리가 자신 안에 갖고 있는 것에 따라서 봉사해서는 안 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세상은 나에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말한다.
- F. 여섯째로, 바울의 유일한 목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서 증가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바울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라고 말한다.
- G. 일곱째로,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바뀌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 우리는 그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며, 그리스도께 완전히 얻어지기만을 바라야 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 H. 여덟째로, 우리는 우리의 교회 봉사와 일과 행정에서 오직 한 가지 결과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그 결과는 반드시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출되심으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체들 안에서 증가하시며, 모두가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엡 4:13).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라고 말한다.
- I. 아홉째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위해 기도했다(롬 1:9, 엡 1:16, 골 1:9, 살전 1:2).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골 4:2).
- J. 열째로, 우리는 살아 있는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과 같이, 특별히 위에 나열된 요점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엡 3:20)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IV.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 내고 한 새사람을 산출하기 위해, 봉사자가 어떠한 영과 태도와 기도와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계시해 준다.

- A. 바울의 영과 태도—그가 본 것, 그를 채우고 있는 것, 그가 말하는 것, 그의 마음이 관심하는 것—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시고 사람과 연합되심으로, 그리스도로 교회를 건축하시어 교회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이상과 관계가 있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가장 귀중한 요점은 바울의 기도와 믿음이 아니라, 그의 영과 태도이다.
- B. 우리는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 안으로 일해 넣어 주고, 재료이신 그리스도를 그들 안으로 건축해 넣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그들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표현 곧 충만을 위해 영적인 성전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영과 태도가 되어야 한다.
- C. 바울은 부담이 너무나 무거워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엡 3:14)라고 말하였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은 속에 있는 무언가가 그로 하여금 아버지께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
- D. 주님을 섬기는 모든 장로와 모든 집사와 모든 동역자와 모든 사람은 이 이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바울과 동일한 영과 태도와 내적인 감정을 가질 정도까지 이 이상, 이 계시를 보아야 한다.
- E. 바울은 아버지에 의해 강하게 되어 속사람에 이르러야 하는 우리의 필요에 관한 네 방면을 묘사했다.
1. 믿는 이들이 강하게 되는 것에 관한 첫째 방면은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엡 3:16)이다. 영광은 표현되신 하나님이다 — 비고 출 40:34, 대하 7:3, 겔 1:28, 10:4.
 - a.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그 풍성의 표현이며, 표현된 그 영광이 충만이다(골 2:9, 엡 3:19하). 이것은 하나님께서 표현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 b.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안으로 일해 넣어지며,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표현되신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있게 된다 — 엡 3:20-21.
 - c. 표현되신 하나님의 영광은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그들 안에서 강하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다. 그 결과 믿는 이들은 강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한다.
 2. 믿는 이들이 강하게 되는 것에 관한 둘째 방면은 ‘그분의 영을 통하여’(엡 3:16)이다. 그 영이 없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표현되실 수 없다. 아버지는 내주하시는 영을 통하여 안에서부터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이 내주하시는 영은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셨다.
 3. 믿는 이들이 강하게 되는 것에 관한 셋째 방면은 그들이 ‘능력으로’(엡 3:16) 강하게 되는 것이다. 이 능력은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에 언급된 능력, 곧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렸고, 그리스도를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혔으며,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켰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여 교회에게 주신 능력이다.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발휘되고 있으며(엡 1:19-20),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4. 믿는 이들이 강하게 되는 것에 관한 넷째 방면은 그들이 강하게 되어 ‘속사람에 이르는 것’(엡 3:16)이다. 속사람은 우리의 거듭난 영이며,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이 거듭난 영의 생명이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강하게 되어 우리의 영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 F. 그 결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이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마음’은 중요한 단어이다. 이 단어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 반응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의 마음은 느낌과 감정의 기관이며, 바로 이곳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장소이다.
1.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람 안으로 일해 넣는 그 필요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증가하시는 일에 사로잡혀 있었다. 따라서 이것이 그의 영과 태도가 되었으며,

이러한 그의 영광 태도가 그의 주요 관심사였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썼을 때, 심지어 우주까지도 초월하였다.

2.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느낌 안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실재가 되실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을 것이다. 그러한 상태에서 바울은 우리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네 단어를 합한 것이 바로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신 그리스도이다.
 3. 이 모든 것의 결과로서 우리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될 것이다(엡 3:19).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하며, 우리의 생각과 기도는 이것을 위해야 한다.
 4. 책임 형제들은 무엇을 자신의 목표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 분명해야 한다. 책임 형제들의 목표는 인수의 증가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증가인가? 책임 형제들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그리스도가 증가하시는 것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울과 같아야 한다.
 5. 우리는 이것 외에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태도와 영광 기도가 되어야 한다.
- G.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이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기도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바로 뒤에 나오는 20절과 21절에서 그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의 완전한 의미는 새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의 완전한 나타남이며(계 21:10-11), 오늘날 교회는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 되어야 한다.
 2.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가져야 하는 영광 태도와 기도와 믿음이다. 이럴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며,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될 것이다 — 엡 3:19하, 비교 갈 4:19.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봉사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기도와 믿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해 말할 때, 우리의 강조점은 봉사에서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봉사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역대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새 예루살렘인 것을 보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재료로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시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생명과 본성과 그분 자신의 형상으로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교회 안에서 행정을 다루고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하시는 결과를 산출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람들 안으로 건축해 넣어 그리스도로 교회를 건축하여, 그들의 내적인 생명과 본성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과 똑같이 해야 한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셔서 속사람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도록 하시고, 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알도록 도와주며, 또한 바울의 영과 태도와 기도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이러한 영과 태도와 기도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만일 참되게 교회를 보고, 교회를 건축하는 재료를 본다면, 우리는 그러한 종류의 영과 태도를 갖게 될 것이고, 또한 그러한 종류의 기도와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바울의 영과 태도

우리는 왜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바울의 영과 태도를 나타낸다고 말하는가? 예를 들어, 한 형제가 땅을 사서 집회소를 건축한다고 할 때, 그의 영과 태도는 집회소를 건축하는 일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표현될 것이다. 만일 한 쌍의 젊은 성도가 곧 결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오늘부터 결혼식 날까지 그들의 영과 태도는 결혼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들의 영은 결혼의 영이고 그들의 태도 또한 결혼의 태도이다. 누구든지 그들을 만나면 그들에게서 나오는 영을 느낄 것이다. 그들이 보는 것과 말하는 것,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전부 결혼과 관계된 일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영과 태도이다. 그들 안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것과 말하는 것과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모두 그것과 관계된 것들이다. 그들의 전 존재가 그 일로 점유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영과 태도가 되었다.

에베소서 3장에 있는 이 부분의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3-4절). 따라서 그의 영과 태도, 즉 그가 본 것과 그의 안에 충만한 것과 그가 말한 것과 그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모두 이 이상(異象)과 관계가 있었는데, 이 이상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시고 사람과 연합하심으로, 그리스도로 교회를 건축하시어 교회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전 존재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가 본 것과 그가 말한 것과 그의 마음이 관심한 것은 이 일과 관계가 있었다. 성경의 이 부분의 말씀에서 가장 귀중한 중점은 바울의 기도와 믿음이 아니라, 바울의 영과 태도이다. 몇몇 집회들을 참석하고 교회와 교회를 건축하는 재료를 본 뒤에, 우리는 이것에 완전히 사로잡힌 가운데 각자의 지방에 돌아가기를 갈망해야 한다. 우리는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 안으로 일해 넣고 재료이신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 안에 건축해 넣어, 그들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의 표현을 위하여 영적인 한 성전이 되기를 갈망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

에베소서 3장에 있는 기도는 바울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이러한 일과 이상과 계시와 본 것이 그의 영과 태도가 되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3장에 이를 때, 그가 이러한 기도를 기술(記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여기의 이러한 기도는 에베소서의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 책의 1장에서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이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것을 구하며 기도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그는 3장에서 또 다른 기도를 드린다. 그는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14절)라고 말하였다. 바울이 받은 부담이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던 것이다. 그의 안에 있는 무거운 어떤 것이 그로 하여금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바울이 받은 이상과 계시와 그가 본 것은 그의 영과 태도와 그의 안의 느낌이 되었다. 이것은 곧 결혼하게 될 한 쌍의 남녀와 비교할 수 있다. 그들은 결혼에 마음이 있고 그것을 학수고대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스포츠에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스포츠 경기를 보는 사람들과 같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우리도 이 이상을 보았다면, 이러한 이상에 사로잡혀 아버지께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따라서 장로든

집사든 동역자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상과 계시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바울과 똑같은 영광 태도와 느낌을 가질 정도로 이상과 계시를 보아야 한다. 바울은 이러한 영광 태도와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은 영광 태도를 가져야 하며,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이러한 기도를 중심 삼아야 하고 또한 이러한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바울의 기도

바울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있는 믿는 이들을 강하게 해 주시기를 구했다. 그의 기도는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에베소 사람들이 강하게 되는 것에 관한 네 가지 방향을 묘사했다. 첫째로, 그는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16절)라고 기도했다. 영광이란 무엇인가? 영광이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과 내용이 표현된 것을 가리킨다. 성경에서 영광은 하나님께서 표현되신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표현되신 것이 바로 영광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산에 성막을 건축했을 때, 여호와와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 이스라엘 백성이 본 영광이 바로 이 영광이었다(출 40:34).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그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와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이스라엘 자손이 영광을 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었다(대하 7:3). 에스겔서 1장과 10장은, 하나님께서 그룹들 위에서 움직이시고 그룹들을 통하여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에스겔은 그가 본 것을 묘사할 때,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했다(1:28, 10:4). 따라서 영광은 하나님께서 표현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표현되신 것이 영광이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표현되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의 풍성’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의 풍성의 표현, 즉 그분의 뛰어난 속성들의 풍성의 표현, 신격의 풍성의 표현을 가리킨다. 신격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풍성하고, 신격의 표현은 충만하다. 골로새서 2장 9절은 하나님의 풍성의 표현을 가리키는 신격의 모든 충만을 말한다. 신격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밖으로 표현되신 것을 가리킨다. 신격의 표현은 영광이다. 예를 들어, 전기는 전구 안에 있는 내재적인 것이다. 전구의 빛으로 전구의 내적 본질이 표현된 것이 전구의 ‘영광’이다. 우리가 스위치를 켤 때, 전구 안에서 전기가 표현된다. 그러므로 신격의 외적인 표현이 영광이다. 골로새서는 신격의 내적인 내용이 풍성이며, 표현된 영광이 충만임을 보여 준다.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은 신격의 표현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있는 믿는 이들을 강하게 하셔서 속사람에 이르게 하실 것을 기도했다.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라는 구(句)는 하나님께서 표현되시기를 원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분은 믿는 이들 안에서 제한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강하게 하셔서 속사람에 이르게 하셔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홀로 남아 계시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표현되시기를 원한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표현되신 것이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표현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히 1:3)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영광의 하나님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3장 16절에 있는 ‘풍성’은 신격의 풍성이고, 신격의 풍성의 표현인 영광은 충만이다.

바울은 하나님께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믿는 이들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하시기를 구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이들이 믿는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표현을 느낄 수 있을 정도까지 그들이 강하게 되기를 구했다는 뜻이다. 표현되신 하나님의 영광은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그들 안에서 그들을 강하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다. 그 결과 믿는 이들은 강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강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없다면, 그 강함은 여기서 말하는 강함이 아니다. 어떤 형제들은 매우 강하지만 그들의 강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지 않으며, 아담의 영광을 표현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자매들은 매우 강하지만 그들의 강함은 육체를 나타내고, 의지와 의견들로 가득한 그들의 존재를 나타낸다. 그러한 종류의 강함은 하나님의 풍성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체의 풍성을 따른 것이다.

우리는 “주님, 우리가 육체를 따라 강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강하

지만 그들의 강함은 사람들에게 육체의 풍성을 보여 준다. 반면에, 어떤 형제자매들은 그들의 강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보여 준다. 그래서 바울은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 여러분을 강하게 하셔서 속사람에 이르게 하시고”라고 말했다. 이러한 강하게 함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 안에서부터 그분 자신을 표현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도는 참으로 위대한 기도이다.

에베소의 믿는 이들이 강하게 되는 것에 관한 둘째 방면은 ‘그분의 영을 통하여’ 강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영이 없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표현되실 수 없다. 에베소의 믿는 이들이 강하게 되는 것에 관한 셋째 방면은 그들이 ‘능력으로’(엡 3:16) 강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사람이 강하게 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방면은 그들이 강하게 되어 ‘속사람에 이르는 것’이다. 여기서 강하게 하는 것은 물질적인 몸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인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에베소서 3장 17절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라고 말한다. 이것은 속사람이 강하게 됨으로써 얻은 결과이다. 앞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고 다만 영광과 그 영만을 언급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이다. 신약 전체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언급할 때, 어느 한 구절에서도 에베소서 3장 17절처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라고 말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라고 말한다.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을 가리킨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마음’은 중요한 단어이며, 이 단어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느낌과 감정을 가진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신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있는 곳이다. 우리의 마음은 느낌과 감정의 기관이며, 바로 그곳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장소이다. “믿음을 통하여 ...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라는 말은, 처음에 우리가 강하게 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해야 한다.

외적인 개선이 아니요 내적인 그리스도의 증가임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람 안으로 일해 넣는 그 필요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는 에베소의 믿는 이들이 비록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거하신 것을 그들의 느낌과 감정에서 깊이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 봐 걱정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그들을 강하게 하셔서 속사람에 이르게 하심으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기를 기도했다.

바울은 마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관한 일에 ‘사로잡힌’ 사람 같았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영과 태도가 되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비록 에베소의 믿는 이들 안에는 계시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계십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그분을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하는가? 결혼에 관하여 생각해 보라. 만약 우리가 갓 결혼한 부부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다면, 그들의 감정과 느낌이 온통 결혼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바울은 다른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믿는 이들 안에서 운행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느끼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로 채워지며,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만을 위해 기도하였다.

바울의 주요 관심사는 믿는 이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있었다. 교회를 돌보는 우리의 일과 봉사에서 우리는 믿는 이들이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실 것을 기대하는, 이러한

종류의 영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면, 교통 집회에서 불평하고 화를 자주 내는 한 형제가 있다고 하자. 그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영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아마 우리는 그 형제의 화내는 일이 조금 개선되기를 바랄 것이다. 이러한 소망이 그 형제에 대한 우리의 영과 태도이다.

가령, 당신이 섬기는 교회 안에 말하기를 좋아하고 형제자매들이 참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성질이 나쁜 형제가 있다고 하자. 처음에 당신은 책임 형제로서 그 형제의 성질이 조금 고쳐지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으면, 당신은 아마 그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집회에 오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계속 오며, 그 결과 당신은 그를 귀찮아하기 시작할 것이다. 비록 당신이 이것을 입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당신 안에는 그러한 영과 태도가 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가 성질을 낼 때, 당신이 오직 그 형제의 성질이 개선되기만을 바란다면, 당신은 교회의 봉사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한 것이다. 당신은 그의 성질이 고쳐지는 대신에, 그가 그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되기를 바라야 한다. 이것은 그가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느끼며, 그의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것에 대해 반응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교회 안의 모든 봉사자들이 바울처럼 이 일에 ‘사로잡힌다면’, 그들은 성질이 나쁜 형제가 개선되기를 바라기보다 오히려 그러한 형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증가되시기를 바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심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됨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속사람에 이르게 하시는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느낌 안에서 표현되시는 것,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내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바울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는 그들이 개선되거나 바뀌기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도록 다만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서 귀하고 달콤하고 사랑스럽게 되시며, 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게 되기만을 바라야 한다.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강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실 수 있게 한다.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신 결과는 바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는 것이다(엡 3:17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는 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는 것이다(4:15).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는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게 하시기 때문이다.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는 것은 우리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을 때, 우리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주님의 사랑에 매우 강권함을 받고 너무나 감동되어 그의 말을 다 끝마치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의 한 가지 견해이지만 사실은 이와 같지 않다. 여기에 올 때, 바울은 우주를 초월한 사람이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의 광대함을 보았다면, 결코 형제자매들과 다투지 않을 것이며, 남편이나 아내도 점점 더 다투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느낌 안에 계시고, 당신의 마음 안에서 실재가 되실 때, 당신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게 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측량하실 수 없는 분이신 것과 같이 그분을 통하여 표현되는 영광도 측량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께서 측량하실 수 없는 분이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란 무엇인가? 이 네 가지를 함께 더한 것은 측량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바울은 우리가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게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을 것이고, 너비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날에 우리는 또한 길이이신 그리스도, 높이이신 그리스도, 깊이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만일 우리가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 살며 그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는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께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이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될 것이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다만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충만이 됨

이어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바울은 “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어”라고 말한다. 그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이 일에 완전히 사로잡혔고, 그것은 그의 영과 태도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실 때, 우리는 그분께서 측량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될 것이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들은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하고, 우리의 생각과 기도는 이것을 위해야 한다.

교회 안의 모든 책임 형제들은 교회를 돌볼 때, 반드시 이러한 영과 태도를 가져야 하고 이러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성도들이 단지 집회에 오고 열심을 내며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만 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책임 형제들은 무엇을 자신의 목표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 분명해야 한다. 책임 형제들의 목표는 인수의 증가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증가인가? 책임 형제들은 이 일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울과 같아야 한다. 우리는 공황을 입어서 형제자매들이 열심을 내고 집회에 오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모든 대만 사람들이 집회에 와서 열심을 내더라도, 그들이 내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조금도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작고 제한된 존재에서 나와 주님께서 측량하실 수 없는 분이심을 보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소망은 또한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되기 위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시고 표현되시는, 그분의 영광스럽고 풍성한 목표에 이를 것이다. 이것이 사도의 영과 태도를 대표하는 사도의 기도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기도

우리는 이것 이외에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님, 어떤 형제가 매우 냉담합니다. 그가 열심을 내게 하소서. 주님, 어떤 자매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가 집회에 오도록 그녀를 회복하소서. 어떤 자매는 성질이 나쁩니다. 그녀가 개선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도들을 강하게 하셔서 속사람에 이르게 하소서. 그들이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소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측량하실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살고 계심을 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그들을 충만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영과 태도와 기도가 되어야 한다.

바울의 믿음

아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형제자매들이 열심을 내고 집회에 오도록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이것은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어렵습니다.” 따라서 20절은 바울의 믿음을 보여 준다. 그는 “이제 우

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라고 말했다. 여기의 '능력'은 성경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능력'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객관적인 것이 아니다. 이 능력은 주관적인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능력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줄 수 있다.

이 구절은 외적이며 물질적인 축복과는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께 삼십 평짜리 집을 예비해 주실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사십 평짜리 집을 주셨다고 가정해 보자. 이것은 겉보기에 내가 구하고 생각한 것을 초월한 것이다. 자녀가 없는 한 자매가 "하나님, 제게 공흔을 베푸소서.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당신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저에게 아들을 주소서."라고 기도하였다고 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셔서 한 아들이 아닌 쌍둥이를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녀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신 것이다. 또 어떤 형제가 사십 만원이 필요해서 기도했는데 뜻밖에도 주님께서 그에게 칠십 만원을 주셨다면, 겉보기에 그것은 그가 구하고 생각한 것을 참으로 초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이 성경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아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16절부터 19절까지의 기도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까 봐 걱정하면서, 이어지는 20절에서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3장 끝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있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1절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크게 해방되시어 표현되신 것을 뜻한다. 이것이 영광이다.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 영광이 있으시다는 말은 그분께서 교회 안에서 완전히 표현되신다는 뜻이다. 현재 우리가 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결국에는 그 영광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 표현되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을 밝게 하고 어린양은 그 성의 등이 되시는 것을 볼 것이다. 빛은 등에서부터 비추어 나와서 성 전체를 밝게 할 것이다(계 21:23).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 영광이 있으실 것이라는 말의 완전한 의미는 새 예루살렘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충만을 다 비추어 내실 것이다. 새 예루살렘 안에는 투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금도 맑은 유리같이 투명할 것이다(계 21:18). 그리스도는 성의 등이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민족들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의 완전한 표현이다. 오늘날 교회는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가져야 할 영과 태도이고, 주님을 섬길 때 가져야 할 기도와 믿음이다. 우리는 마땅히 이러한 기도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영과 태도는 바로 형제자매들이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영과 태도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다면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봉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럽겠는가! 비록 이러한 봉사가 중요하고 영광스럽지만, 우리는 이것이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렸고 날마다 일하시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라고 말한다. 여기의 '...까지'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즉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보았다면, 이것은 우리의 영과 태도와 기도와 믿음이 될 것이다. 만일 우리의 영과 태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믿음이 이 한 가지 일을 위한다면, 우리의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될 것이다.(교회를 돌보는 길, 181-198쪽)